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음 2월 6일) 제15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4.13 총선 D-30 도내 경선 발표 총선열기 '후끈'

“차르와 연대 안한다”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야권연대 불가 방침 재천명
“전열 재정비 앞으로 나갈 것”

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다르게 해보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시작한 국민의당은 이제 멈출 수 없다며 “지역구를 주고 받는 연대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뭉치기만 한다고 표가 오지는 않는다”며 “앞을 보고 걷는 정당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110 여석의 제1당이 뒤늦게 혁신과 변화를 말하고 있다”며 “한 개인의 개인기에 의한 변화에는 뿌리가 없고 무엇을 하려는 지조차 모르는 듯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종인 대표가 말한) 북한 과밀론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극우파 들이나 하는 말”이라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온 당의 정체성은 간체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더민주와의 연대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 지역 구에 자객공천을 하는 한편 다른 지도부의 지역구를 비워줬다고 하는 것은 합박과 회유이자 정치공작”이라며 “더민주의 패권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야당으로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는 김한길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산대위원장을 재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주 기자



‘환한’ 미소 지난 12일 오전 전주한옥마을을 동학혁명 백주년기념관에서 국민의당 전북도당 ‘일자리 해방정책과 신인재 양성’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안철수 대표와 정동영 전주병 예비후보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정당별 단수·경선 대상자

▲새누리당(단수후보 34명, 경선지역 11곳)
전주 김(선호지), 전주 을(정오진), 전주 병(김성주), 김제 구(김주식), 군산(채용국), 익산 유(민송권), 나(원) 유(실수장주 등)

▲더불어민주당(단수후보 12명, 경선지역 11곳)
단수 전주 김(민준), 전주 병(김성주), 김제 구(김주식), 군산(채용국), 익산 유(민송권), 나(원) 유(실수장주 등)

▲국민의당(단수후보 10명, 경선지역 11곳)
단수 전주 박(종동영), 정읍(고창(유성근), 군산(김선경))
경선 익산 김(배승철·고상준·이한수·정자훈), 익산 을(김영근·전정호·조(수·노(기) 등), 남원(임철순(성)·김(호·권(준·이(성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각 정당이 도내 선거구에 대한 경선지역 등을 속속 발표하면서 4·13 총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13일 현재 제3차 지역구 후보 압축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정운천 전 장관 등 6명의 단수후보를 확정했다.

단수후보 확정지역은 전주 을과 군산 익산을 3곳이며 북수지역 단수후보자는 전주갑과 전주병, 남원임실순창 3곳이다.

선거구별로 보면 전주 갑 전회재 새누리당 전 사무부총장 전주 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주 병 김성진 전 서해대 교수, 군산 채용국 군산신안연맹 상임부회장, 익산을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남원임실순창 김용호 변호사가 결정됐다.

최근 새누리당 전북도당 공천신청자는 총 15명으로 특히 남원 지역에서는 3:1이라는 전북 정치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환한’ 미소 더민주, 단수·경선 8곳 국민의당, 단수·경선 6곳 새누리, 단수만 6곳 발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이처럼 많아진 이유는 새누리당에 대한 도내 지지율이 예전과 달리 평균 10~20%를 넘나들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야권이 분열되면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호기로 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6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후보 및 경선 여부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수후보 지역 5곳과 경선지역 3곳 등 총 8곳을 확정하는 등 선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선거구 2곳 중 양자대결구도인 완산을(이상자

최형제)은 14일 3자대결구도인 완주 진안무주장수(박민주·유희태·안호영)는 15일이면 후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 단수후보 확정 선거구는 전주 갑(김윤덕)과 전주 병(김성주), 김제·부안(김준진), 남원·임실·순창(박희승), 정읍·고창(하정열) 등 모두 5곳이다.

경선지역은 전주 을(이상직 최형제)과 완주진안무주장수(박민주 안호영, 유희태), 익산 갑(이춘석, 한병도) 등 모두 3개 지역이다.

현재까지 단수 및 경선지역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더민주 선거구는 군산과 익산을 선거구 2곳이다.

야권 심장인 전북 맹주 자리에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당은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가 8곳의 후보군을 선보이는데 반해 국민의당은 단수공천지역 3곳 등

6곳만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확정된 단수공천지역은 전주 병 정동영 전 의원, 정읍고창 유성업 예비후보, 군산 김관영 예비후보다.

이날까지 발표된 국민의당 도내 경선지역은 총 3곳으로 익산갑과 을 남원임실순창이다.

익산갑은 배승철 전 도의원과 고상진 국회의원 유성업 전 보좌관, 이한수 전 익산시장, 정재혁 (전)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총괄실장 등 4명이 경선대상자로 결정됐다.

익산을은 현역 의원인 전정희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 김연근 전 전북도 의원 박기덕 (전)세종연구소 소장 등 4명이 경선을 통한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당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서 이영호 김원종 이상호 3명의 예비후보를 모두 경선대상자로 확정했다. /고민형기자

알림

총선 특별취재반 운영

전주매일이 내달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정적선거로 유도하기 위해 4·13 총선 프로그램, 전복의 희망을 뽐내’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본보는 고민형 정경부장등 본사기자들과 각 지역 주재기자들로 구성된 총선특별취재반을 운영합니다.
특별취재반은 본지 20대 총선 보도준칙에 따라 현장의 생생한 뉴스와 다양한 소식을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하며, 또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 소개와 함께 정책을 검증하고 감시 기능도 더욱 강화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선특별취재반장 = 고민형 정경부장
- ▲총선특별취재반 1팀 = 신명영 부장(팀장), 박용주 사회부 차장, 정영수 기자, 군산문정근 기자, 익산정영원 차장, 정을김대환 부장, 김재곽노태 국장, 남원유영철 부장, 부안 이옥수 국장, 고창김영식 부장, 임실진홍영 부장, 순창구인규 부장, 진안우태만 국장, 장수고관호 부장, 무주전문선 부장, 완주이종복 차장
- ▲총선특별취재반 2팀 = 김재훈 차장(팀장), 한기선 기자, 장은승기자, 홍성희 기자, 조현아 기자, 오영민 기자
- ▲20대 총선 부정선거 제보 = 전화 288-9700, 팩스 288-9703

전주매일

▶ 매일 INDEX
2면 전주 병 예비후보 세 명이 본격화 4면 도 사업부서 주요재정사업 평가 12면 전북의 장터사람들 13면 김신욱 1골...전북현대 개막전 승리

‘청소년이 아름다운 우리의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 6 회 전국 청소년 마술 경연 대회

그동안 청소년 마술 동호인들의 전폭적인 관심속에 개최되었던 전국 청소년마술경연대회가 올해로 6 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과 전주매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끝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일 시 : 2016. 3. 26 (토) 15:00 ~
장 소 : 전주 중부비전센터 5F 비전홀
주 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공동주관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
대회 참가문의 : 전주매일 문화사업국(063.288.9700)